



世界養鷄產業動向 (6)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브라질

1976년에 551.6 TON의 닭고기와 5억 1천만 타스의 계란을 생산하였고 국내의 양계산물 수요는 10억불 정도이고 수출은 2천만불 이상이였다. 인구 1억 1천만명으로 국민 1인당 닭고기 5.48 kg, 계란 55개로서 낮은 소비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양계산물의 수요 대상자는 전체인구의 1/3 정도의 도시인이고 나머지 2/3은 시골 농촌의 농민들로서 이들은 닭고기나 계란을 자급자족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어 이 통계자료 수집에 브라질의 전체 인구 중 농민 3,700만의 수요로 계산할 때 연간 닭고기는 16.3kg 계란 165개의 소비 추세를 실제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년동안에 급성장한 브라질의 양계산업은 주로 Broiler 사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69년에는 1억 1천만 수의 Broiler를 기르고 있었는데 1976년에는 3억 9천 4백만수, 1977년에는 1976년의 15%가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확대된 양계산업의 목표는 1975년까지 국내소비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는데

계획대로 1975년에 이들의 목표를 앞질러 양계생산물을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여 1975년 아랍지역에 7,500 TON의 닭고기를 수출하였으며 1977년에는 21,000 TON의 수출실적은 올렸고 올해는 4만 TON의 닭고기 수출이 무난하리라는 예상이다.

브라질의 양계산업 발달의 시초는 다른 여러나라들과 다름없이 195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야 사양관리의 근대화, 종계 개량, 근래 사양표준의 필요성과 기술을 조금씩 터득하게 되었고 역시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의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미국과 기술제휴로 양계기술 자들의 왕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왔으며 60년대 초반에는 근대화된 사양관리와 우량 실용계 생산의 실현단계에 도달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북미 종계회사 종계들이 브라질에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유럽, 일본, 이스라엘의 조직들이 브라질양계산업에 뛰어들어 일대 세계 양계의 국제시장처럼 되어 혼란이 오게되었고 1972년에는 브라질 자체의 종계생산을 위해서 전세계의 수입 품종을 이용한 육종사업이 정부 사업으로 추진되게 되었던 것이다.

양계산업의 기본이 되는 사료대책에서

옥수수과 대두의 생산이 세계 제일이고 땅콩, 알팔파, 어분의 생산도 풍부하여 어분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대신에 이들이 양계사료제조에 필요한 미량원소, 비타민등을 수입함으로써 양계사료의 생산보급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는 안정된 양계산업의 조성에 크게 도움이되고 있다.

산란계산업은 Broiler산업 만큼 커다란 성장의 변화는 없이 1969년 450만타스의 계란생산이 1976년에는 510만타스로서 양적인 생산량증가를 보여 주지는 못했지만 1969년 이래로 산란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즉 대규모사양으로 옮겨갔다는 것이 주목할만한 변화였다.

농촌의 부업적인 양계농장도 300~500수의 규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업적인 면모를 갖춘 농장에서는 수십만수에서 100만수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육방법은 캘리포니아형 케이지 사육이고 초생추의 감별은 대부분이 일본인 기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 850,000의 일본에서 이민온 사람들에 의해서 브라질 전체 산란계 산업의 70%를 생산면에서 점유하고 있으며 Broiler 산업에서는 약 10%정도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사육되고 있어 일본인들에 의해 브라질 양계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당연하리라 생각된다.

중동 여러지역에 수출이 시작되었고 대규모 사육형태로 변한 현재의 브라질은 양계산물이 식품으로 이용될 때 까지의 적절한 준비 및 보관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1977년에 근대화된 완전자동 도계시설을 만들어서 외국시장에서 덤핑(남보다 헐값으로 파는것)으로 선진국들과 경쟁하던것을 질적인 완성품으로 닭고기 수출에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 쌍파울로, 리오데

자네이로등의 주요도시에서는 외부품질과 계란의 크기에 따라서 계란의 등급제 판매가 실시되고 있고 멀지않아 내부품질에 따른 등급제 판매도 실시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 1억 1천 3 백만, 국토면적 850만km²의 브라질의 양계산업 발전가능성은 무한정이고 또 현재의 위치로 세계적인 수출국가로 성장하고 있어 세계 선진제국들과 경쟁이 용이하게 풀릴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양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978년 9월에 제16차 세계가금학회를 초치하여 세계의 많은 학자들에게 그들의 양계산업을 소개하고 앞으로 그들의 발전에 발판이 될수 있는 제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남 아메리카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등 남아메리카의 여러나라들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1975~1976년동안 미국에서 남미 여러나라에 수출한 종계와 실용계의 수를 보면 표 1 과 2 와 같다. 브라질 멕시코들은 양계산업이 발전된 나라로서 실용계의 수입은 줄고 그 반면에 종계의 수입이 늘고있으며 니카라과, 콰테말라 등에서는 종계의 사양기술등의 부족으로 실용계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분포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쉽게 양계산업의 수준을 짐작할수가 있으며 또 남미 여러나라의 양계산업 발전의 면모를 짐작할수가 있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굴지의 종계회사들은 남미의 양계산업 성장에 따른 그들의 대책이 마련되고 그들 나름대로의 남미제

표1. 남미 여러나라의 미국에서 수입한 종계 현황(1975~1976)

나 라 명	수입수수(千수)		수입액(千\$)	
	1975	1976	1975	1976
벨 시 코	288	297	821	1,274
과 테 말 라	166	24	165	30
엘살바도르	41	75	19	91
니카라과와	787	3	121	6
바 하 마 스	363	66	83	24
도 미 니 카	195	149	153	160
콜 롬 비 아	141	103	314	217
베네주엘라	292	258	747	831
에 콰 도 르	202	114	218	164
페 루	183	91	657	417
칠 레	30	102	48	166
브 라 질	216	263	980	1,404
계	2,904	1,545	4,326	4,784

국의 향후 5년간의 발전추세를 Poultry International의 설문에서 밝혔다. 여러회사들의 세계양계산업을 비롯한 남미의 양계 산업 발전에 대처한 그들의 의견을 산란계와 Broiler로 구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산란계

아보야크 농장 앞으로 5년동안 남미의 국민 1인당 계란소비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일 것이므로 산란능력이 우수한 닭의 개량에 역점을 둔다.

코로니알 농장 사료 1kg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계란 즉 사료효율을 경영의 절대적인 중요성으로 설정하고 또 일정면적당 많은 수수의 닭을 기를수 있는 방법에 역점을 둔다.

데칼브 세계 다른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남미에서도 기업화된 농장에서 난생산에

집중적으로 힘을 기울일 것이고 이에따라서 난질을 개량하여야 하며 앞으로 5년 후에는 단백질식품으로 계란의 소비는 매우 신장될 것이다.

하바드 농장 산란계산업은 규모가 커지고 3만~5만수 규모의 자동화된 계사가 많이 필요로 될 것이고 질병대책에 중점을 둔다.

하이라인 사료효율과 난각이 남미나 세계 어느나라든지 산란계산업의 중요한 요인으로 되어질 것이다.

표2. 남미 여러나라의 미국에서 수입한 실용계 현황(1975~1976)

나 라 명	수입수수(千수)		수입액(千\$)	
	1975	1976	1975	1976
멕시코	127	136	71	89
과테말라	136	206	89	196
엘살바도르	266	638	48	193
혼두라스	1,186	736	231	224
니카라과와	2,189	3,332	325	553
코스타리카	5	61	11	30
파나마	0	16	0	24
바하마스	3,055	3,925	578	766
자메이카	123	122	23	21
하티티	279	454	50	90
도미니카	1,078	803	422	341
트리니다드	154	284	99	187
안티레스	306	244	91	69
콜롬비아	56	131	112	341
베네주엘라	11	63	21	77
쿠야나	269	269	104	116
수리남	1,599	1,073	312	244
에콰도르	200	184	65	159
페루	13	12	16	60
칠레	8	0	20	0
브라질	11	9	50	41
계	11,071	12,698	2,738	3,821

로만 갈색산란계의 육종학적 개발이 계속될 것이나 백색란과 갈색란의 가격이나 기호성의 차이는 점점 좁혀지게 될 것이다.

세이버 가금육종 농장 남미의 양계산물 시장은 안정화 되어 더욱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브로일러

아보아크 농장 앞으로 5년동안 남미의 1인당 닭고기 소비는 계속 증가될 것이다.

코브 브라질, 베네주엘라등은 경제의 팽창으로 양계산업의 규모가 커질 것이고 칠레, 아르헨티나등은 경제의 회복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구축하면서 대규모의 양계농장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급속적인 움직임이 선진국의 고도화된 기술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코브회사는 남미의 구석구석에 어디든지 동등한 투자를 계속 할 것이다.

그란자구아나바라 대규모 농장의 체제로 변모할 남미에서는 Broiler 경제 형질로서 살불침이나 도체율, 생존율등에 우수한

품종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무조건 높은 체중의 브로일러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바드 농장 브로일러 산업도 대규모의 통합체제가 갖추어지고 소비자들은 약물 첨가나 미량원소가 첨가된 사료를 이용하지 않은 Broiler고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인디안리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브로일러산업이 사료소비량과 사료효율 개선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므로 이 회사는 남미에서 지난 3년간 연구결과를 토대로 육종계로서 산란능력과 브로일러의 능력을 균형있게 개량해 나갈 것이다.

피터슨 사료값의 앙등에 따라서 남미의 Broiler산업은 육성기간의 단축을 꾀할 것이고 그러므로 브로일러 출하체중은 낮아지고, 더 좋은 사료효율을 이용함과 동시에 시설의 이용율을 높이게 될 것이다. 또 Broiler사육농가는 줄고 사육규모가 증가되는 것도 일정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것이며 경영형태는 완전 통합체를 갖추어서 어느 특정형질의 우수성에만 관심을 가지는 시대는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원색 닭 질병전서를

가질수있는 마지막 기회 !

금년 본회에서 발간되었던 원색 닭 질병전서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완전 매진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본회는 미처 책을 구하지 못하신 분들의 열화같은 독촉으로 책을 재판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여러분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계와 관련되시는 모든 분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닭 질병의 원색총람 원색 닭 질병전서의 구입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방법은 전화나 엽서로 본회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중구 양동 44-28

대한양계협회 편집부